

연임 제한 폐지법 ‘촉각’…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빨라졌다

여야 10명의원 中소협동조합법 발의
통과 가능성 높지만 ‘미통과’ 관측도

김기문 회장 ‘추가연임’ 최대 변수
노조 면담서 “3연임 출마 안 한다”

노조 반대 목소리, 부회장 일부 온도차
보궐 선거시 임기규정 문구 관심 집중

1년 뒤에나 있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가능케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마지막 날 깜짝 발의하면서 내년 2월에 치러질 28대 회장 선거에 도화선을 당긴 모양새다. 관련 포인트는 현재 중기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의 추가연임 여부다. 일단 김 회장은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와 면담 자리에서 3연임을 위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25명 부회장 중에선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더해 중기중앙회 주변에선 벌써부터 선거에 훈수를 두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연임 제한’ 없앤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또 김 회장이 노조와 한 약속과 상관없이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중기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내년 초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자칫 중소기업계 망형인 중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맨 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 두번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오른쪽)과 떡 테이크를 자르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앙회의 내용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우선 관련은 선거전에 불을 지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정진욱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다수당인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데다 제1야당까지 합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기중앙회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일부에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노조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인 중기중앙회 노조는 정치권, 언론, 정부 등 모든 관계기관을 통해 법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법 통고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지난 1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김 회장에게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존경받는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계의 큰 어른으로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설문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개정안은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900개에 가까운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뿐만 아니라 6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기중앙회 회장은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김 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

년까지 23~24대 회장을 역임한 후 25대를 건너뛰고 2019년부터 26대를 거쳐 현재 27대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임기가 4년인 중기중앙회장만 ‘연임+연임’으로 16년째 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서 개정안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과 ‘3연임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한 상황이다.

특히 중기중앙회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긴 ‘이사장(회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이 내용을 곱씹어보면 차기 회장이 어떤 이유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또다른 사람이 뒤를 이어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내용

인데, 그렇게되면 연임 이슈도 자연스럽게 빚겨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빨라지는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이목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함께 내년 2월에 치러질 제 28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미 한 차례 연임한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회장이 다음 주자에 바통을 넘기고 박수칠 때 떠나는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노조와 약속을 깨고 3연임에 도전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법 통고를 전제로 김 회장이 주변으로부터 등을 떠밀려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 없이 추대하거나 또다른 경쟁자들과 경선을 치뤄야한다.

차기 회장 선거전이 김 회장을 포함하든, 그렇지 않은 경쟁구도가 연출될 경우 자칫 선거가 과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선으로 진행한 25·26대 선거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럴 경우 업계 망형인 중기중앙회는 도덕성에 큰 흠집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회장 선거 과정에서 과거를 답습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리더를 뽑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난방비 줄이는 ‘고단열 창호’로 시장 공략

LX하우시스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 적용
로이유리 1장으로 단열 1등급

LX하우시스가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고단열 창호로 시장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18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창호시장 1위 업체로 ‘LX Z:IN(LX지인) 창호뷰프레임’ (사진)을 선보이

고 있다.

‘뷰프레임’은 국내 창호 업계 최초로 창틀은 거의 안 보이고 창쪽만 보이는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물론 한장의 로이유리만으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구현이 가능한 뛰어난 단열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창쪽과 창틀 모두에 단열성능을 높이는 다중 챔버 설계기술을 적용해 프레임 두께는 줄이면서도 1등급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마치 옷을 여러 겹입는 것처럼 창틀·창쪽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구조 덕분에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효과가 커지게 한 것이다.

뛰어난 단열성능과 함께 제품 전반에는 미니멀 디자인을 적용했다. ‘뷰프레임’은 베젤리스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물론 창쪽 높이까지 최대 14mm 줄여 슬림해진 프레임으로 더 넓어진 뷰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하루 15분 앉기만 해도 케겔 효과”

요실금 치료기 ‘테라솔U’ 출시

코웨이가 가정용 의료기기 브랜드 ‘테라솔(Therasol)’을 론칭하고 첫 라인업으로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테라솔 U’를 출시했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가정용 의료기기 신규 브랜드 ‘테라솔’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Therapy)와 해결책을 의미하는 솔루션(Solution)의 합성어다. 집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코웨이는 테라솔을 기반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테라솔의 첫 제품 ‘테라솔 U’는 중장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실금을 집에서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를 돕는 ‘비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 장치’와 근육통 완화를 위한 ‘개인용 온열기’ 기능이 결합된 의료기기로 허기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입증받았다.

‘테라솔 U’는 사용 시 반복적인 저주파 자극이 골반저근과 주변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요실금 치료에 도움을 준



코웨이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테라솔 U’

다. 하루 15분간 앉아만 있어도 케겔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코웨이는 테라솔 U를 각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렌탈과 일시불 판매를 모두 진행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테라솔은 집에서도 전문적인 헬스케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코웨이의 새로운 가정용 의료기기 브랜드”라며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테라솔 U를 시작으로 고객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中소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70%·월 최대 2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조합을 대상으로 7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